

120억년 전 고대 은하 무더기 관측

우주가 생성되고 20억년이 채 안 된 시기에 별을 활발히 만들어내는 대형 고대 은하가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다.

이는 우주 초기에 대형 은하가 드물 것으로 제시해온 현재의 우주 모델들과는 상치하는 것으로 이론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와 과학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도쿄대학 천문학연구소의 왕타오 연구원과 프랑스 대체에너지·원자력위원회 천문학자 다비드 엘바즈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137억년에 달하는 우주 역사에서 초기 10억~20억년 사이에 활발하게 별을 생성하는 대형 고대 은하 39개를 확인했다. 이 은하들은 태양 400억개에 달하는 질량을 갖고 있으며, 매년 약 200개의 새로운 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백색육으로 바꾸면 유방암 위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적색육 섭취를 백색육인 닭고기로 바꾸면 유방암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 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의 데일 샌들러 박사 연구팀이 전국 여성 4만 2,012명을 대상으로 평균 7.5년에 걸쳐 육류 섭취량과 유방암 발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1,536명이 조사 기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적색육 섭취량 상위 25% 그룹이 하위 25%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색육인 닭고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15% 낮았다. /연합뉴스

일,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심사기간 예상보다 3분1 단축... '금수조치 아냐' 포석 경산상 "잘못된 사례 나오면 추가대책" '고삐' 유지

일본 정부가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8일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들 3개 품목을 포괄하기 대상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뒤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9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첫 신청의 심사 기간은 애초 예상했던 것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의 무역규제가 한국 정부 주장처럼 금수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 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

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측 움직임에 맞춰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을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고삐'를 주도적으로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전용 우려가 크다면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1차로 리스트 규제를 받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푸른 창공을 수놓다 7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중부 크루세보 인근에서 열린 '제16회 국제항공연맹(FAI) 패러글라이딩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1차로 수

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케이news는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일 미술평론가연맹 '소녀상' 등 전시 복원 촉구

"표현활동 억압 안돼" 의견문

일본의 미술평론가연맹이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국제 예술제 기획전의 전시 중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의견문을 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술평론가연맹은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중단에 대한

'이견표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근본부터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미술평론가연맹은 "(기획전) 시작 당시의 모든 전시가 회복되는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활동이 폭력과 협박으로 억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폭력 행위로부터 시민의 활동을 지키는 일이 경찰을

포함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술평론가연맹은 행정에 의한 작품의 철거나 은폐에 대해 "시민 스스로가 판단할 권리, 감상할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행정이 신뢰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이 나라가 공포에 지배당할 폭력을 추종하는 국가라고 스스로 보이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하이 임정 기념관에 새 태극기 걸린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 새 태극기가 내걸린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8일 오전 상하이시 황푸구 마당로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총영사관과 기념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된 태극기는 독립기념관이 맡아 제작한 것으로서 두 달에 걸친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 1층에 걸린 태극기는 2001년 독립기념관이 제작해 기증한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변색하여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삼 총영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정 청사에 태극기를 새로 기증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설 개

보수 지원 등 임정 청사를 찾는 우리 방문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임정 청사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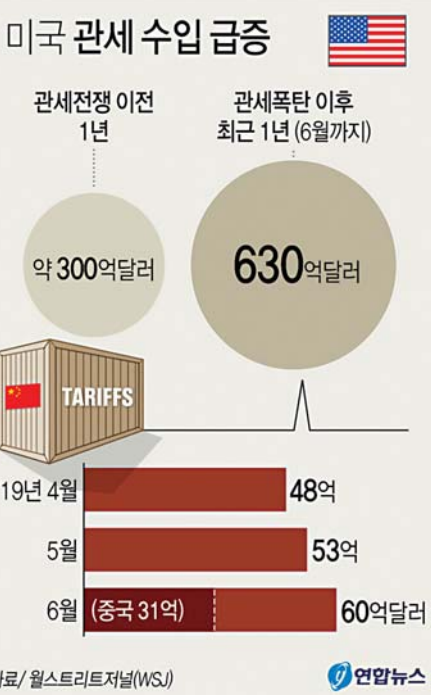
상하이 마당로 푸청리(보경리) 골목에 있는 청사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물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 사메이(하비)로 321호의 큰 서양식 저택을 첫 청사로 삼아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 10여 차례 이상 개인 집과 한인 단체 사무실 등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가 1926년 현재 임시정부 기념관이 남아 있는 푸청리 4호의 건물을 얻어 운봉길 의사의 홍거우 의거가 있던 1932년까지 사용하게 된다.

현재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은 중국 정부 측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내부 전시물 제공 등과 관련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래픽 뉴스



미 "한국에 MH-60R 헬기 12대 판매 승인"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헬기 12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헬기는 약 8,900억원(약 9,700억원) 규모

라고 밝혔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판매 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DSCA는 "이번 제안된 판매는 미국

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역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동해와 남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퍼핀스베일리조트

전국 4개 직영점 확장 오픈기념!!!

4년간 990,000원 에 누리는 퍼핀스베리조트 회원권

“추가 300만 고객에게 더 드립니다.”

- 30박 무료 숙박권
- 골프 제휴사 (그린피 5%-20% 2년간 할인)
- 무료 숙박권 5박
- 수상레저 상품권 (1만원권) 14매 증정
- 바베큐 상품권 (2만원권) 10매 증정
- 커피상품권 (5천원권) 10매 증정
- 전국 퍼핀스베리조트 직영점 회원가 이용 가능(4년간)

이용 가능 골프장
- 전라도권 23여곳, 경상도권 40여곳, 제주도권 20여곳

www.puffinsbayresort.com
퍼핀스베일리조트

퍼핀스베리조트만의 특별함

전국 각 지역의 퍼핀스베리조트는 산과 함께, 강과 함께, 바다와 함께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별장입니다.

퍼핀스베리조트 멤버

입회금액 : 990,000원 (VAT포함)
멤버기간 : 4년
자 격 : 본인 및 직계가족
멤버카드 : 기명 1매

입금전용계좌

(주)모두누리
농협 351-1043-5911-23

- 금일 현금 결제시 영화 CGV 무료권 2매 증정
- 본 상품은 확장기념 홍보이벤트 상품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및 법인 멤버는 별도 상담합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평직영점



낙산직영점



영덕직영점



완도직영점



바베큐



수상레저



골프

입회가입문의 02)535-1910 상담문의 시간은 평일 오전 10~17시 까지입니다.